

토론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부장

前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CSO)

現 청와대사회적경제비서관

토론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현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주요경력

2017 산림청 산림일자리위원회 위원

201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20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조직화 및 운영위원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참여

2007 사회투자지원재단 설립

200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참여

2005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 조직화 및 간사

2004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1998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설립

*사회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 가능성

2017. 11. 16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혁신을 보는 관점

사회혁신

사회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사회혁신은 기술 및 산업 혁신까지 모두 포괄하여 “사람을 위한 (for), 그리고 사람과 함께(with) 하는 혁신” 으로 정의된다
(EC 2013)

‘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Christiansen and Bunt 2012)

시민들의 자발성 뒤로 숨지 않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성

필요 환경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 결과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제도

사회혁신과 일자리

일자리 창출

- 자본에 고용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의 협동에 의한 자기(시민)고용 방식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 안정적이고 개인의 성장과 가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가능성과 현실성은 ?

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현실성은 검증이 됨.
그러나 좋은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은 지금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대부분 미지수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단상...

좋은 일자리

정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생산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모두를 위한 기회(국제노동기구, ILO)

주요지표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 노동조건 /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 소득불평등 및 사회보장 /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민주노동)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비교 한국의 수준 (2015년)

임시직 비율 - 5위 / 30개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 - 20위 / 21개국
장시간 노동 - 33위 / 34개국
산재사망자수 - 3위/20개국
성별임금 격차 - 1위/22개국

산업변화에 대한 고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서비스 산업은 사업(체)과 개인을 위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서비스 분야는 단순 노동에서부터 지식 및 기술 기반과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증가

감정 노동의 증가

대인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업무상의 고통이 증가.

산업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돌봄 서비스의 증가로 돌봄노동 종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발의(2017.9.01)정미 의원 대표발의)
또한 2016년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감정노동자보호법' 발의(2016.11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노동과 경쟁하지 않는 기술

위험한 노동 영역을 보완)

노동의 완전 대체가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위험이 큰 분야의 노동을 기술과 기계가 보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해 산재 예방.

취약한 노동력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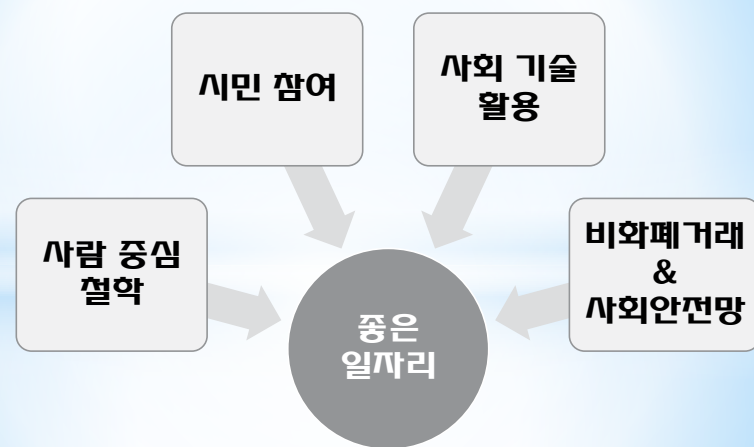
고령자들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노동 숙련도가 미흡한 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력을 기술과 기계가 보완해 생산력을 유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

취약한 노동력을 담보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함.
기술과 기계를 통해 종래에 충족되지 못했던 서비스를 해결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그 가능성을 위해 ...

관점과 환경



시민의 성장

시민 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조와 책임)

공공재원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민관 협력 극복

시민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는 시민 주도성 필요.(정부의 과잉 지원 예방)

비화폐 거래 활동을 통한 현금 보존 효과)

전일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거리만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비화폐 거래 방식인 품앗이 경제를 활성화 해 현금 보존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동체의 회복)

품앗이 경제 활동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완성될 수 있음.

교육과 보육,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순환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과 공동체성 강화 필요.

경제력 확보

정책과 연동 된 시장 안정)

특화된 시장 - 사회서비스, 자원 순환, 에너지 분야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돌봄망 형성 등

사회 기술의 지원과 이전)

제품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강화(기술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 에너지 보급 및 지원(연료, 전기 등)

사회적금융 및 자산 안정화)

창업 촉진 -> 젠트리피케이션 -> 상업용부동산정책개선
금융 접근성 개선, 시민상호금융 허용, 시민공유자산화

일자리 중심의 평가 극복)

시민들의 의한 경제 활동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일자리(일거리)에 대해 사회 가치 평가 필요

노동관계개선등

돌봄 노동자 및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선)
직장 중심의 고용-피고용 관계 형태만이 아니라 독립 노동, 조합원 노동 형태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제도로 보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접근 필요

사회기술을 통한 서비스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산재 예방)
제도적으로 산재 인정 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의 신체적 감정적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 도구 및 감정 측정 도구 등의 개발, 노동 과정 합리화 등

감사합니다.

토론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승원 소장은 서강대 철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영국 University of Durham에서 철학 석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Essex에서 이데올로기와 담론분석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소장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연구와 함께 세계 민주화 운동 포럼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 선도센터 연구교수를 거쳐, 2014년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제사업단장으로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 Global Social Economy Forum(GSEF)' 창립총회를 준비했다.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생태 민주주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서울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 있는 여러 연구프로젝트를 민관 산학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 혁신

발표자들의 깊은 성찰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제시해주신 실행전략과 사례들에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지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분권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분산/분권성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중앙집중적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일자리라는 동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수평적 분산/분권화' 전략과 '시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평적 분산/분권화는 단지 쪼개기가 아닙니다. 생태적 순환, 에너지 자립, 민주적 자치가 유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과제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내부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 자본과 중앙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이처럼 '효율성'의 논리를 따른 결과는 가장 불안하고 나쁜 일자리와 지역 경제체제였습니다. 외부 자본과 중앙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가 '수평적 분산/분권화' 차원에서 생태적 순환, 에너지 자립, 민주적 자치를 만들어 가는 데 외부 자본과 중앙 계획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역 기반 연구조사를 통한 문제 · 필요 · 수요 발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기반 연구조사는 중앙 차원의 전문가 연구 이전에 현장의 최종 수요자/주민들 차원에서, 그들의 언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의 민관 · 산학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리빙랩'이라는 사회혁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리빙랩은 사회혁신 차원에서 기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새로운 정책 또는 사회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종의 열린 공정을 의미합니다.

리빙랩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 조사 및 분석, 정부 정책 결정 나아가 비즈니스 R&D 모델에까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네덜란드 현장조사를 통해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빙랩은

1. 기본적으로 시민역량 강화(civic empowerment)를 최우선 가치에 놓는다
2. 1번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상상력과 실천을 동원한다. 기존의 어떤 장벽이나 제도도 시민역량 강화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중요한 건 가치 우선의 열린 구조와 방식입니다. 그래야 가치를 실현할 모든 상상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빙랩이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규모는 '지역'입니다. 물론 국가 단위의 리빙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서울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인구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비교해보면 '국가 단위'라는 것도 대단히 탄력적인 사고임을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리빙랩'은 '협의체'라는 고정된 의사결정체를 명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 리빙랩 그 자체가 '제한된 위원회나 제도를 넘어서 민관·산학 협치'인 것입니다.

어떤 과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민이든 관이든 사회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는 스스로를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참가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자체 보고서 등에 기반해 제안하고, 이를 회의에 모인 주체들이 협의하고 논의합니다. 여기서 관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집단의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유형이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도서관 서비스 등)

몇몇 협의체 위원들이 민관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새로운 안건이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주체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고 실행력의 근간이 됩니다.

민관협의위원회와 이 위원회 운영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주장을 통해 논리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공교육과 사회적 관습도 필요합니다.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문사회과학적 인식 지평이 리빙랩의 핵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사회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역 주민에서 시작하는 리빙랩 방식의 협의 과정은 위계적인 원하청 구조, 그리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 수평적 협력관계로서 민관·산학 협치에 기반한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혁신 방법의 핵심인 '상상과 연결을 통한 새로운 자원의 창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리빙랩을 통한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은 그 과정 자체가 시민역량 강화이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인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시민 자산화가 시작되는 사회적 합의 틀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주요경력

2016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현)

2017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현)

2009 사단법인 수수팔떡 이사 (현)

2016 전국귀농운동본부 감사 (현)

2017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현)

2003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전)

2016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상임대표 (전)

초록

빛고, 짓고, 꿰어서 하나되는 혁신 그리고 일자리

메가트렌드 분석을 도입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15개로 도출하면,

①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②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③글로벌 윤리의제의 다변화, ④첨단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화, ⑤디지털기술의 진화와 인터넷의 미래, ⑥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경제의 지속, ⑦글로벌 위기 이후 신경제시스템 출현, ⑧세계경제의 구조재편, ⑨도시화되는 세계와 메가시티의 출현, ⑩지역간 협력 및 지역통합, ⑪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⑫자원고갈 및 에너지의 미래, ⑬민주주의 진전 및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⑭국제분쟁 및 국제조직원지 급증, ⑮의학기술 진보 및 신종 질병 확산 등이라 할 수 있다. (충남연구원)

여기서 충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의존 심화, 대중국 수출 의존도 가속화,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집적(석탄 화력발전소 등), 양극화 등 갈등구조 심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농어촌 마을의 고령화 심화(65세 이상 인구) 낮은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등이다.

이상의 과제들을 지역에서 대안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1) 로컬푸드를 대안으로 한 먹거리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얼굴(이력)있는 먹거리,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먹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감하는 먹거리, 화석연료의 소비를 최소화한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잡곡, 정육, 발효 가공 공장 등)

2) 재생에너지로 가꾸는 마을 경제 대안에너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해양, 수력, 풍력 등

- 에너지 자립마을(성대골 사례)

3)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문화, 건강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이루어지는 교육, 마을 내의 의료복지, 마을 내의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진행, 카페운영, 주기적인 마을 '놀장' 진행

4) 농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경관조성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경사회 (농촌경관을 사랑하는 회원들 활동 사례)

5) 환경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실개천 살리기 등)

– 반딧불이 축제, 실개천 살리기, 조롱박 터널 만들기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내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혁신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을 넘어 이웃과 함께 도모할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의 삶도 가능 할 수 있다는 의식들이 다행히 도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척박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깨워 내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다.

어디에 살고 있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도시의 과잉과 농촌의 결핍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넘쳐나는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서로 메꿔주는 삶의 방식이 바로 혁신일 것이고 그 결과는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